

# 살벌한 KIA 마운드, '최고참' 양현종도 긴장

### 서재응 투수코치 “경쟁서 살아남을지 고민하는 모습 보여”

### 남은 1군 엔트리, 선발·불펜 각 2자리씩 총 4자리...무한경쟁

“피칭 강도가 어마무시하다.” KIA 투수 최고참 양현종도 놀란 기색이 역력했다. 미국 플로리다주 포트마이어스 스프링캠프에서 펼쳐지는 KIA 투수들의 뜨거운 경쟁에 ‘어마무시’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 양현종은 “어린 선수들의 피칭 강도가 어마무시하다. 투수들끼리 선의의 경쟁이 붙어서 자리 싸움을 하고 있다. 난 원래 캠프에서 늦게 공 던지는 스타일이지만 빨리 준비해야 하나 싶을 정도”라고 말했다. 투수진을 이끌고 있는 서재응 KIA 메인 투수코치의 생각도 같다. 서재응 코치는 “전체적으로 젊

은 투수들이 몸을 잘 만들어왔다. 선수 본인들이 비집고 들어올 자리가 얼마 없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경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 고민하는 모습이 보인다”고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KIA 마운드는 지난해 젊은 선수들의 성장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줬다. 특히 불펜에선 새 마무리 문경찬을 비롯해 전상현, 하준영, 박준표, 고영창 등이 주축으로 떠올랐다. 이들은 변수가 없다면 개막 엔트리에서 시작한다. 지난해 활약에 대한 우선권. 맷 윌리엄스 감독과 적극 소통하며 1군 투수진 구성 권한을 부여 받은 서 코치는 “이 선수들에겐 시

범경기에 안 좋아도 올해 무조건 1군 엔트리에서 시작할 것이라고 확실하게 전했다”며 “남아있는 1군 엔트리 자리가 선발과 불펜 2자리씩, 총 4자리뿐이다 보니 투수들끼리 피칭할 때마다 더 집중하는 게 보인다”고 설명했다. 선발진은 에이스 양현종, 외국인 투수 애런 브룩스와 드류 가논이 3자리를 확정했지만 나머지 두 자리는 시즌 전까지 무한경쟁이다. 후보군으로는 임가영, 이민우, 홍건희, 김기훈, 그리고 새로 합류한 홍상삼과 김현수까지 차고 넘친다. 서 코치는 “이대로 간다면 진짜 머리 아프다”고 웃으며 행복한 고



민이라는 표현에 고개를 끄덕였다. 이어 그는 “메인 코치는 음해 처음이다. 모든 코치들이 캠프랑 시즌은 다르다고 한다. 나도 같은 생각이다. 아직 캠프 초반이고, 실전 경기에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밸런

스가 한 번 무너질 때가 있을 것이 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서 코치는 “밸런스가 무너졌을 때 어떻게 빨리 회복시킬지가 관건이다. 젊은 선수들이 많다 보니 좋을 때 견장을 수 없이 올라가

지만 무너질 때도 확 무너질 수 있다. 앤서니 르루 불펜코치와 함께 이 부분을 잘 잡아줘야 할 것 같다. 시즌 중 큰 폭풍이 한 번은 오겠지만 빨리 잠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 나란히 고전한 전북과 울산, ACL 녹록지 않다

### K리그 챔프 전북, 요코하마에 1-2 패배...울산은 도쿄와 1-1 비겨



K리그 챔피언이 4년만에 ACL 우승에 도전하는 전북현대가 1차전에서 J리그 챔프 요코하마에 1-2로 패했다.

“K리그 연패를 이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북에 가장 중요한 목표는 아시아 제패다.” “이제 울산은 K리그뿐만이 아니라 ACL과 FA컵까지, 모든 대회 우승을 노려야 하는 팀이다.” 지난해 정규리그에서 역대급 우승 경쟁을 펼치면서 1위와 2위를 차지한 ‘현대’ 라이벌 전북 현대와 울산현대의 2020시즌 지향점이다. 기본적으로 K리그 우승을 다툰 두 팀은, 동시에 아시아 무대로 시야를 넓히고 있으며 그 도전을 위해 질적양적 스쿼드 보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울산은 일본으로 떠난 김승규 골키퍼의 빈자리를 조현우(전 대구)로 대체했고 미드필드진은 윤빛가람(전 제주)과 고명진(전 NK슬라벤) 등 전 국가대표와 최근 AFC U-23 챔피언십 MVP인 원두재(전 후쿠오카)로 채웠다. 수비진에는 장신 센터백 정승현(전 가시마)이 가세했고 전방에는 네덜란드 1부리그 AZ알카르에서 뛰던 노르웨이 출신의 장신 스트라이커 비온 존슨을 영입, 힘과 높이를 더했다. 전북은 울산에서 뛰던 마에스트로 김보경을 영입한 게 가장 큰 소득이다. 여기에 2부리그로 강등된 경남FC로부터 일본인 미드필더 쿠니모토를 영입, 아시아 퀀터를 채웠고 남아공 국가대표

출신의 벨트비크와 브라질 출신의 테크니션 무릴로 등 새로운 외국인 선수들로 전방을 보강했다. 수비라인에 노련한 오반석(전 알와슬)과 패기의 구자룡(전 수원)을 가세시켰고 공격진에는 김학범호의 스트라이커로 활약했던 조규성을 수혈해 이동국의 뒤를 받치게 했다. 이미 쟁쟁한 선수들이 포진된 두 팀의 스쿼드에 새로운 얼굴들이 더해져 펼쳐질 궁정적인 시너지를 떠올린다면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ACL) 정상권에 도전할 수 있는 전력이라는 인평의 평가가 적잖았다. 그런데 첫판은 기대 이하였다. 이제 1경기를 두고, 그것도 시즌 첫 경기를 가지고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나 마냥 장밋빛만 이야기할 것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다. 참가 4개팀 중 가장 빠른 11일 출격한 울산은 울산문수경기장에서 열린 FC도쿄와의 ACL F조 1차전에서 1-1로 비겼다. 안정적으로 경기를 펼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초반부터 라인을 울렸던 도쿄의 공세에 시종일관 애를 먹었던 울산은 선제골을 내준 것을 비롯해 경기 내내 끌려가다 상대 자책골로 어렵사리 승점 1점을 챙겼다. 전북은 충격이 더 크다. 전북은 12일 전주월드컵경기

장에서 펼쳐진 요코하마 마리노스와의 H조 1차전에서 1-2 패배를 당했다. K리그 챔피언과 J리그 우승팀의 격돌이라 양국 리그의 자존심까지 걸려 있던 대결이었는데, 내용상 완패였다. 전북은 송범근 골키퍼의 수차례 슈퍼세이브가 없었다면 5골까지도 내줄 수 있었을 정도로 고전했다. 김진수의 자책골이 있었고 후반 24분 손준호, 후반 37분 이용이 퇴장을 당하는 등 불운이 겹쳤다고는 하지만 토 달 수 없는 완패였다. 아무래도 새로운 선수들이 많이 가세한 두 팀이었기에 조직력 측면에서는 시간이 필요해보였다. 특히 울산은 스리백을 가동하는 등 전술적인 변화도 있었다. 하지만 시즌 초반이라는 것은 FC도쿄나 요코하마 마리노스도 동일했다. 심지어 그들이 원정이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졸전이었다. 선수들 개개인의 역량부터 팀으로서의 조직력까지, 울산과 전북 모두 도쿄와 요코하마에 밀렸다. 물론 전북과 울산 모두 워낙 개인 능력치들이 높은 선수들이 대거 포진돼 있기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경기력이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그러나 첫 1차전에서 승점을 챙기지 못한 것은 적잖은 손해다. 같은 조에 녹록지 않은 팀들이 많다. H조 전북은 요코하마 외에 호주 A리그 준우승팀 시드니FC와 중국 슈퍼리그 3위 상하이 상강을 만난다. PO를 거쳐 오른 상하이 상강이 걸림돌이다. 전북은 지난해 16강에서 상하이 상강에게 패해 8강이 좌절된 바 있다. 호주는 이동 자체가 부담이다. F조의 울산도 호주 원정이 있다. 지난해 A리그 우승팀 퍼스 글로리아와 격돌해야한다. 여기에 한국 축구를 워낙 잘 알고 있는 것을 비롯해 경기 내내 끌려가다 상대 자책골로 어렵사리 승점 1점을 챙겼다. 전북은 충격이 더 크다. 전북은 12일 전주월드컵경기

## 김광현 5선발 경쟁 ‘먹구름’?

### STL 사장 “마르티네스 선발 우선 기회”



메이저리그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에 입단한 김광현(32)의 선발 경쟁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세인트루이스의 존 모젤리악 야구 운영부장은 김광현의 경쟁자인 우완 카를로스 마르티네스(29)에게 우선 기회를 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세인트루이스 지역매체인 KMOX 등 북수매체는 13일(한국 시간) 미국 플로리다 주피터에서 열린 세인트루이스의 소식을

전했다. 이날 모젤리악 사장은 5명의 선발 로테이션에 대한 구상을 드러냈는데, 새 얼굴인 김광현보다는 마르티네스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모젤리악 사장은 “마르티네스에 선발전에 포함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면서 “그에게 기회를 줄 것이다. 그는 이미 선발 경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2년 800만 달러에 세인트루이스 유니폼을 입은 김광현은 5선발 자리를 놓고 담금질을 하고 있다. 세인트루이스는 이미 잭 플래허티-마일스 미콜라스-다코타 허드슨-애덤 웨인라이트로 이어지는 4명의 선발진 구성을 마친 상황이다.

세인트루이스는 스프링캠프와 시범경기 등을 통해 남은 5선발 자리를 확정하기로 정했는데, 마르티네스가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마르티네스는 2016~17년까지 선발로 나섰지만 2018시즌 중간부터 불펜으로 이동했고, 지난해에는 마무리로 출전했다. 2016시즌 16승(9패)과 2017년 12승(11패)을 올린 경험이 있다. 2019시즌에는 48경기에 나와 4승2패 3홀드, 24세이브, 평균자책점 3.17의 성적을 냈다. 모젤리악 사장은 마르티네스의 선발 기용 방침을 알리며 “앞으로 40일 간 팀의 마무리 투수를 찾고(선발)로테이션을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마이크 실트 세인트루이스 감독은 마르티네스의 5선발 확정에 대한 질문에 말을 아꼈다. 실트 감독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김광현에게 충분한 경쟁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 막판 치열한 V리그...한전·KB ‘고춧가루 주의보’

### 순위표 하위권 밀렸지만 향후 우승경쟁 변수 떠올라



프로배구 정규리그 막판 치열한 우승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남자부 하위권 팀들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순위표에서는 밀려 있지만 향후 우승경쟁에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은 충분하다. 13일 현재 우리카드의 21승7패(승점58)로 2위 대한항공(20승8패·승점56)에 2점 앞선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다. 최근 10연승을 달리는 등 기세가 나쁘지 않다. 하지만 12일 최하위 한국전력이 선두 우리카드를 끈질기게 괴롭혔다. 한국전력은 승부를 풀세트로 끌고며 승점 1점을 올렸고 우리카드는 승리하고도 승점 2점 추가에 그쳐 아쉬움이 남았다.

한국전력은 우리카드에게 완벽하게 고춧가루를 뿌리지는 못했지만 승점 1점을 뺏어오는 성과는 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2년차 레프트 이승준과 신인 세터 김명관이 있었기에 더욱 값진 결과였다. 우리카드전에 선발 출전 기회를 잡은 두 선수는 마음껏 기량을 펼치며 상대를 괴롭혔다. 이승준은 서브, 블로킹 등 다양한 방법으로 18점을 몰아쳤다. 김명관도 높이를 활용하면서 경기를 잘 풀었고 블로킹과 서브에서 점수를 올리기도 했다. 장병철 감독은 “젊은 선수들의 활약은 우리 팀의 미래를 밝게 해 줄 것으로 평가하고 싶다. 앞으로

도 좋은 선수들을 계속해서 기용하겠다”고 호평했다. 한국전력은 6승21패(승점22)로 최하위에 머무르며 포스트시즌 진출이 사실상 좌절됐다. 아쉬움이 남는 시즌이지만 남은 기간을 젊은 선수들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다. 패기를 앞세운 젊은 선수들이 상승세를 타게 된다면 시즌 막바지 중요한 승부처에서 갈 길 바쁜 팀들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하위권에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또 다른 팀은 6위 KB손해보험(10승18패·승점30)이다. KB손해보험은 새로운 외국인 선수 마테우스 합류 이후 5승3패를 기록하며 분위기를 끌어 올리고 있다. 우승 다툼을 하는 팀들에게는 KB손해보험의 최근 기세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 KB손해보험은 시즌 중반까지도 확실한 해결사가 없어 승부처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왔다. 그러나 마테우스 합류 이후 이와 같은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흐름을 돌렸다. KB손해보험은 14일 대한항공과의 경기를 앞두고 있다. 시즌 마지막 순위 상승을 노리는 KB손해보험과 단독 선두로 올라갈 수 있는 대한항공의 맞대결이기에 치열한 승부가 예상된다.